

피라는 노력의 산물, 그 뿌리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고난 사람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이 있다.

《같은 노래도 모란봉악단에서 형상하면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된다.》, 《모란봉악단 배우들은 악단에 오기전부터 뛰어난 기량의 소유자들이었던것 같다.》...

그러나 결코 그런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량수준과 배우생활 경험같은것이 어린 음악계의 초학도들이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모여오다나니 마음의 안살름을 맞추지 못했고 높은 수준에서 편곡된 악보를 도저히 연주할 수가 없어 저도 모르게 당황해지던 그들이었다. 그래서 열백밤을 패고래여도 자꾸만 시간이 모자라는것만 같아 하루에 2~3시간 밖에 못하면서도 기량훈련을 하고 공연준비를 완성하였고 그 과정에 그들은 온넛과 열정을 오직 음악이라는 거대한 세계에 강그리 쏠아붓는 노력가들로 자라나게 되었다.

하다면 어떻게 되어 몇년전까지만 해도 나어린 음악소녀에 불과했던 그들이 현실적인 정열가, 온넛과 열정을 음악세계에 강그리 쏠아붓는 불굴의 노력가들로 자라날수 있었는가?

그것은 다름아닌 한편의 명작을 위해서라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애국충정의 세계가 그들의 심장속에 뿔어번졌기때문이다.

사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모란봉악단을 개오도로 하고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지도해 주신 시기는 그이께 있어서도, 인민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시기였다. 그이의 어깨우에는 중하가 지워졌있었고 그 어느 부분, 그 어느 분야에서나 그이의 지도와 가르치심을 바라고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란봉악단 지도에 바치신 시간은 이른 새벽과 명절날, 일요일이 더 많았다. 하루종일 국사를 돌보시고 깊은 밤에 나오신 그이를 새벽녘에 바래드리었는데 한낮에는 벌써 전선에 계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으면서 눈물을 머금던 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이었다. 정

절세 위인의 음악 세계에 매혹되어 (2)

말이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루하루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만큼 말 그대로 불철주야의 헌신이였다.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철은 그대의 자기들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경 애 하 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우리는 혼란과제를 못하고서는 잡자리에 들수도 없었고 멋들어진 곡상을 찾아내기 전에는 밤술을 들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인민을 위해 끝없는 사랑과 헌신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멀고 험한 강행군길을 생각하며 성악훈련을 할 때에도 그이앞에 선 심정으로 노래를 불렀고 수도와 멀리 떨어진 북방의 한 끝에서 공연을 할 때에도 그이께서 보아주신다고 생각했으며 그이의 로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훈련, 한차례한차례의 공연에 최선을 다하고 피땀을 바쳤던것이다.

피라는 노력도 위대한 사랑에 뿌리를 둘 때 발췌될수 있고 열매를 맺을수 있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과 보폭을 함께 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불변의 진리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였기에 모란봉악단 창조집단은 앞으로도 인민을 위하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출연자들을 가까이 부르시여 공연성가를 축하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여 예술창작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퍼올릴것이다.

문학예술의 천재

이번 대회에서 토론한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한결같이 터친 격찬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지 야말로 문학예술의 천재이시며 정력적인 령도로 선군조선의 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가시는 위대한 스승이시라는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조국찬가》가 어떻게 되어 우리 나라의 제2의 애국가, 시대의 명곡으로 태어날수 있었는가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

지 못하다. 이에 대해 설레성 공훈국가합창단 창작실장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감명깊게 토론했다.

지난해 9월 공훈국가합창단에서 새롭게 창작한 노래 《인민공화국 찬가》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의 곡은 좋는데 가사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제한성이 있어 제 목도 고쳤고 가사도 다시 썼다고 하시면서 그 가사를 가지고 합창단에서도 형상하고 모란봉악단에서도 형상하면 멋있을것이라는 믿음과 기대와 함께 그들에게 가사를 보내주시었다.

《조국찬가》의 가사는 길지

않았다. 그러나 담고있는 내용과 곡이 거대하고 그에 비해 표현은 작고 소박하여 부드러운 친화력을 가지고있었다. 그래서인지 노래는 일시에 사람들의 가슴속에 스며들었고 찬란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나 터졌다.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어준 정든 고향집 트랙 조국이여라》를 불렀고 기대알의 생산자도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도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고 터졌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 《조국찬가》의 가사에 인

민의 생활, 인민의 어휘를 그대로 담아 조국에 대한 사랑의 철학을 천명하심으로써 창작가들에게 작품창작의 진수를 깨우쳐주시었던것이다.

문학 예술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천품을 보여주는 이야기는 많다.

공훈국가합창단에서 모란봉악단과의 합동공연무대에 올릴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를 창조할 때

어느날 이 작품의 첫 연주를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편곡을 재미있게 잘했다고, 연주를 다시 해보고 하시었다. 그러시고 후반부분 합창대목의 《누구도 막지 못해》를 반복할 때 《막지 못해》를 웨치는 식으로 하면 멋있을것이라고 이리시

였다. 그이께서는 그날 이 노래를 5차례나 들으시면서 어느 대목에서든지 땀방아가 나오면 더 좋았을것이라고 하시며 민중성을 살리는 문제는 어느때나 기본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며칠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노래 《우리 앞날 밝다》는 가사가 좋기때문에 3절까지 다 부르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2절에서 3절로 직접 들어가고, 그러되 전조를 하라고 하시면서 간주는 그 다음에 그대로 하면 된다고 구체적인 방도까지 밝혀주시었다.

지금껏 2절까지 하고 간주를 한

다음 3절을 하는것을 유일한 편곡 방법으로 알던 창작가들과 일꾼들은 구래의연한 방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착상을 란복을 금할수 없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언제인가 모란봉악단에서 새 노래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완성하던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함께 노래선률을 완성해보자고 하시며 창작가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창작가들에게 전단 첫 소절은 그대로 두고 두번째 소절부터 선률을 악박자로 들어가며 후렴선률을 더 폭발시켜 완성하라고, 너무 갑자기 선률을 비약시키지 말고 감성적으로 끌고가다가 어느 한 대목부터 선률을 승화시켜 후렴으로 련결시켜야 한다고 리듬조작과 음의 진행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던것이다.

정녕 문학예술의 천재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의 문학예술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있는것이다.

이번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와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은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대회와 축하공연은 끝났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늘날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되고있는것은 단순히 인간과 생활을 반영하는 문학예술을 창조하는 예술인들의 회합이기때문만은 아니다.

여기에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그이의 탁월한 예술적천품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를 실지 눈으로 목격하고 폐부로 절감한 문학예술인들의 비상한 체험이 있고 위인칭송의 참된 진실이 있기때문이다.

문학예술인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온 나라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있는가, 그이이시야말로 정치와 경제, 문화와 예술, 군사와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환히 정통하신 위인존자의 위인, 천재중의 천재이시라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더욱 가슴깊이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김 강 철 (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나라가 해방된 이듬해인 주제35(1946)년 5월 어느 날이었다.

새세대들을 새 나라의 역군, 민족의 밝은 미래로 여기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온 나라 어린이들에게 《사랑하는 새 조선 어린이들에게》라는 글을 보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서한에서 우리 나라는 해방되었으며 일제는 망하였다고, 그리하여 우리의 강산, 학교도 다 우리 나라, 우리 인민의것으로 되었다고 하시면서

더 많이, 더 좋게

주제 73(1984)년 3월 어느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인민대학습당도전 사회장을 찾으셨을 때였다.

전시대앞에 이르시여 동화그림책 한권을 손에 드신 그이께서는 동화그림책은 어린이들에 대한 정식교양을 하는데 좋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아이들이 아시아민화나 세계민화를 알수 있게 《세계민화선집》, 《세계아동문학선집》과 같은 책들을 많이 만들도록 할데 대해 지적하셨다.

이어 전시된 여러가지 책들을 주의

백 년, 천 년을 내다 보라

지난 2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는 개건중에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아영소를 현지지도하시었다. 아영각과 국제친선소년회관, 신채록육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개건정형들 구경하시어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이 아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꾸리도록 할데 대해 이리시었다. 지난해 5월 아영소를 찾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며 모든 건국

이렇게 쓰셨다. 《어린이들은 우리 나라의 보배입니다. 앞날의 조선은 우리 어린이들의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앞날을 걸머질 우리 어린이들은 새 나라의 새 어린이로서 힘껏 배우고 일하고 즐겁게 놀고 씩씩하게 자라야 할것입니다.》

사랑하는 새 조선의 모든 어린이들! 새 나라의 씩씩한 새 어린이가 됩시다.》

자자구구 미래사랑, 후대증시의 송고한 뜻과 축복이 담긴 서한이였다.

깊게 보신 그이께서는 우리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이들의 도서를 량적으로 많이 만들고 질도 높이도록 할데 대해 이리시었다.

전시장을 떠나시면서도 그이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책은 생활의 길동무이고 말없는 스승이라고, 좋은 종이로 많은 책을 찍어 학교들에도 주고 유치원들에도 주며 도서관을 통하여 리용하게도 해야 한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물들을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아영소개건은 올해 건설에서 중요한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모든 건국물들을 백년, 천년을 내다보며 건설해야 한다고, 힘이 들어도 질적으로 잘 건설해야 후대들에게 떳떳이 넘겨줄수 있다고 다시금 강조하시었다. 그이의 후대증시, 후대사랑의 송고한 뜻이 담겨진 가르치심이었다.

본사기자

김일성주석의 생애와 업적을 높이 칭송하자

인도네시아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에 즈음한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호소에 호응하여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와 수카르노교육재단이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김일성주석의 서거 20돐을 맞아 그이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에 관한 국제적인 인터넷토론회를 진행할데 대한 조선정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의 호소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밝혔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인민대중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인류의 복리와 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그이께서는 온갖 지배와 억속이 없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자주적인 새 세계 건설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 바치시었다.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1965년에 김정일각하와 함께 인도네시

아를 방문하시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친선과 단결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었다.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흥미와 상징으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늘날 세계에 만발하고있는 김일성화가 태여났다.

우리는 김일성주석회고위원회 속히 결성할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인터넷토론회에 적극 참가하여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할것이다.

본사기자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가 먼

먼치 이르고있는것은 큰 공지고 자부심이 아닐수 없다. 선조들의 자취가 어린 유적하나, 세월의 년륜이 새겨진 문화전통 하나 무심히 대할수 없다.

오랜 력사와 슬기로운 문화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기상이 세상에 높이 펼쳐지고있는 오늘 사람들은 민족사를 깊이 빛내이며 이어가도록 하는데 한평생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가 김일성주석의 업적을 잊지 못하고있다. 만리명건의 심오한 통찰력과 해박한 식견, 불문불휴의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조선사람의 기문체, 민족의 원시조와 첫 노예소유자국가의 발생문제, 고구려의 건국년대와 민족사발전에서 그가 가지는 의의 등 력사학의 중요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지이다.

세월의 풍운속에 혼적마저 사라진 수많은 력사유적들을 발굴하고 개복구하도록 하시여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을 빛내이도록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은 고려태조왕건왕릉에도 깃들여있다.

주제81(1992)년 5월이였다.

나라와 민족앞에 생의 자욱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는 조국강산의 일목일초를 자기의 살붙이처럼 소중히 여기고 심신을 바쳐 사랑한 식물학자 임록재선생도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의 세월에 태어난 선생은 청운의 꿈을 안고 황해북도 황주원에학교를 나왔다. 그후로는 일본 도쿄대학에서 원예약초학을 전공했다. 망국민의 처지에서 조국의 식물과 약초에 대한 애착을 품고 귀국후 서울에서 식물학연구에 고심할때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 나날 그는 일제의 가혹한 민족적멸시와 천대를 면치 못했고 때로는 우리 나라 식물들에 조선말이름을 붙인 죄아닌 《죄》로 해서 불면형무소에서 수감생활도 겪어냈다. 8.15해방과 함께 옥중생활에서 벗어났지만 미군정이

유구한 민족사는 어떻게 빛나는가

어느날 개성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시내에서 북쪽으로 20리가량 되는 곳에 있는 왕건의 통을 돌아보셨다. 통을 한동안 주의깊게 살피보신 그이께서는 왕건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인 고려를 창건한 시조왕인데 통이 초라하다고 나직히 말씀하셨다. 외세의 침략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통을 잘 쓰지 못했을수 있다는것을 헤아리신 그이께서는 태조왕릉을 그대로 두면 태조왕은 누워서도 우리를 육할것이라고, 력사학자들이 태조왕릉을 고사하고 건축가들과 토론하여 잘 꾸리기 위한 안을 만들도록 해야겠다고 이리시었다. 그 누구도 왕릉에 대해 볼품없다고 생각 못했고 력사유적이니만각 그런대로 손상이 가지 않게 보존하는것으로만 여겼을뿐인데 수령님께서는 왕건의 업적에 대한 웅대한 평가와 함께 력사유적으로서의 왕릉이 가지는 귀중한 가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돌리신것이였다.

그후 수령님께서는 왕릉형성안과 돌조각축소모형도 일일이 보시고 력사전문가들과

건축가들속에서 논의가 분분한 통의 규모와 크기문제를 두고 력사주의원칙에서 력사기록과의 관계를 잘 고려해 력사유적유물을 개건복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과학성도실질성문제를 명확히 가르쳐주시었다. 력사연구와 유적복구에서 과학적타당성이 없이 력사적사실을 과장하거나 미화분식하는 편향에 대해 엄격히 대하시며 절대로 불허하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의 깊은 관심과 구체적인 지도속에 왕건왕릉은 옛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웅건하게 개건되게 되었다. 평양의 대성산기슭에 있는 광범사도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에 의해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다시 태어난 력사유적의 하나다. 고구려 광개토왕이 392년에 세워 천수백년동안 보존되여온 광범사는 선조들의 숭고한 광범사와 유구한 문화전통이 습배인 불교사원이었다. 그런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군폭격기의 공습에 송두리채 타버려 그 실체가 완전히 사라졌었다. 대성산의 력사유적발굴

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수령님께서는 1989년 5월 광범사를 원상복구하도록 할데 대해 이리시었다. 그러시고는 광범사형성시안을 보시고 원상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고 대성산을 거니시며 광범사를 앗힐 자리에 정해주시었다. 그리고 몇개월만에 광범사가 원상그대로 건설되었을 때에 다시 현지를 찾으시여 대웅전, 석탑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며 광범사를 잘 복구하였다고, 광범사는 우리 선조들의 재능을 보여주는 우수한 건축물의 하나일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유구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므로 잘 보존관리하도록 할데 대해 강조하셨다.

수천년을 내려오며 우리 민족이 창조한 력사유적유물들을 다 찾아내고 원상복구하며 자손대대로 물려주도록 하시려던것은 수령님의 뜻이고 의도였다. 수많은 력사자료들을 연구도 하시고 때로는 옛

터를 찾아 이슬내린 풀쭉도 걸으셨고 때로는 홀로히 개건된 력사유적을 찾아 현지지도의 귀중한 시간도 바치신 수령님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열화같은 민족애와 애국헌신, 비범한 령도에 의해 민족의 님이 깃든 문화유산 하나하나가 나라의 재부로, 민족의 자랑으로 후세에 길이 물려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설



어버이수령님의 진필이 새겨진 《고려태조왕건왕릉비》

약용식물집, 산림총서와 같은 국보적가치가 있는 도서들을 발행하는데 기여했다. 수삼나무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귀한 나무들을 풍토순화, 재배번식시키는데 자기의 한생을 다 바쳤다.

그의 지질학 모르는 연구활동과 남다른 애국심을 두드러진 수령님께서는 임록재동무

은 어버이수령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은혜였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각별한 보살핌이었다.

1970년 봄이었다. 어느날 그를 만나신 수령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임록재동무와 식물원사업을 하였다고, 계속 도와줄테니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고 두터운 믿음과 고무를 주었다. 또 언젠가는 그가 불치의 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고있을 때 친히 병문안을 하고그러다 죽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마음먹고 병치료를 이악하게 하도록 크나큰 심려와 고무의 말씀을 하셨다.

그가 병상에 있는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이 뜨겁게 미쳤다. 고무를 주었다. 또 언젠가는 그가 불치의 병으로 입원치료를 하고있을 때 친히 병문안을 하고그러다 죽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마음먹고 병치료를 이악하게 하도록 크나큰 심려와 고무의 말씀을 하셨다. 그가 병상에 있는 나날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보살핌이 뜨겁게 미쳤다.

어느 해 여름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룡양생활을 하고있는 임록재선생을 만나시었다. 병에로포되어 연구활동에서 결여되고 식물원 직장의 직책에서도 물러나려 한다는 그의 마음속 사연을 아신 장군님께서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마음을 잃지 말고 병치료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각별한 믿음과 은총속에 그는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 생의 마지막까지 식물의 새 품종육종을 비롯해 나라의 식물학발전에 자신의 있는 지혜와 힘을 다할수 있었고 애국열사로 영생의 언덕에 오르게 됐다. 그는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 로력영웅이고 김일성훈장을 비롯한 많은 훈장과 메달을 받았다.

최수영

재능을 활짝 꽃피워주신 그 은정

김일성주석께서는 해방된 이듬해에 친히 위촉장을 띄워 그를 평양으로 부르셨다.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은총속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선생은 약초식물학연구와 후대교육에 전념했다. 중앙식물원 원장으로서 한 그는 비상한 탐구와 정력적인 집필활동으로 조선식물도감, 조선식물지, 조선

는 재능이 있고 애국심이 높은 귀중한 학자라고, 약초들과 좋은 나무들을 심고 퍼치는네 풍모가 있는 동무라고 치하하셨다.

그가 80고령이 넘도록 손에서 일을 놓지 않고 나라의 식물자원을 늘리고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불리향상을 위해 전심전력할수 있는 지혜와 열정의 원천